



『심층 이슈』

보수당의 브로드밴드 정책 변이

출처 : Guardian (2010/8/16)

주요내용

영국정부는 선거전 공약사항으로 내 놓았던 초고속 광케이블 네트워크에 대한 과세 정책을 번복하면서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음. 문화 통신 창조산업부장관인 Ed Vaizey씨가 광케이블 네트워크에 적용 될 비즈니스 요금에 대한 재검토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이 분야 네트워크 운영사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음.

- Vaizey씨는 영국의 광케이블 사업에 세금을 부여하는 기관인 HM Revenue & custom의 담당부서와의 미팅을 가진 뒤 재검토는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 지난 주 발표함. 그 대신 약간의 변동사항을 포함한 새 가이드라인이 제시 될 것이라 언급함.
- 새 가이드라인은 특별히 민감한 사안인데 그것은 현 정부가 광케이블 사업에 많지 않은 공적자금을 투여하면서 임기 내 영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수준을 유럽 내에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임.
-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Geo의 상임이사인 Chris Smedley씨는 정부가 만약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며 네트워크에 대한 자금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네트워크회사들에 대한 직접적 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함.

- 또다른 광케이블 회사인 Vtesse 네트워크는 정부의 재검토 철회 조치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음. Vtesse의 상임이사인 Aidan Paul씨는 정부가 우리에게 이 사업에 그저 투자만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거기에 시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지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 일축함.
- Geo와 Vtesse는 현재 등급시스템은 새로운 초고속 광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비용을 10% 이상 높이게 하는 것이며 광케이블은 구리선 보다 엄청나게 빠른 접속력을 보여주며 각 가정에 공급되는데 이러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막대한 것이라 주장함.
- 이 현안은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대한 과세 담당 기관인 the Valuation Office Agency에 주목되고 있음. 현재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네트워크 운영사들이 네트워크의 거리에 따라 세금을 부과 받게 되어 있는데 광케이블의 연장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만 함.
- 영국 내 최대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는 BT와 virgin Media는 그들의 수익과 비용에 비례해 과세를 받게되어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과는 다른 지불 방식을 가지고 있음. 여타 다른 소규모 네트워크사들은 이것이 결국 대형회사들에 대한 특혜이며 시장의 경쟁력을 저하 시킬뿐더러 소비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지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음.
- 2009년 11월 Vaizey씨는 보수당 정부는 광케이블 세금의 우선권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라 말하여는데 지난 주 VOA는 Vaizey씨와 회의를 가진 후 지난 주 텔레콤에 대한 가이드 평가를 업데이트 시켰고 이것에 따르면 지난 시스템에서 오직 두 가지 작은 변화만 있을 것이라 발표함.
- 인터넷 서비스 사업체인 Timico의 최고 기술 고문인 Trefor Davies씨는 VOA의 이번 정책변경은 실제로 소형 네트워크 운영사들에게는 광케이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소요 경비를 더욱 높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말하면서 그 이유는 광케이블 라인의 과세 범위가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상승되어 있기 때문이라 설명함.
- 그는 계속해서 이것의 결과는 대형 네트워크 회사들에 대한 특혜로 인한 불평등한 사업적 투쟁을 감당해야 하는 소형 네트워크사들의 과세 수준의 객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봄.

- 한편 Vaizey씨는 VOA의 변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텔레콤 운영사들이 이에 대한 피드백을 내놓기를 요청함, 새로운 초고속 브로드밴드 접속 서비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현 정부의 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영국의 디지털 기반시설로부터 일반 사업체들이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BIS의 대변인이 언급함.
- VOA가 광케이블 네트워크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광케이블이 가치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인데 Vtesse의 상임이사인 Paul씨는 광케이블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업체들에게 이같은 과세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 비판하면서 원래 텔레그래프 업체들은 운영 개시 후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자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지 첫 시작부터 세금을 부과 받지 않던 점을 지적함.
- Smedley씨는 아직 Geo가 현재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취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 말하면서 아직도 정부가 적절한 검토를 빠른 시간 내에 시행 할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함. 그는 계속해서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반전 될 수도 있으며 현재의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던 것이 아니라 일축함.
- 한편 BT는 현재 등급 시스템이 불공정 하다는 의견에 반대의사를 보이며 재검토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축함.
- 현재 시스템 안에서 BT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들이 다른 네트워크 사들에 의해 제기 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논쟁도 참 일수 없으며 이러한 논쟁이 유럽위원회에 회부되어 제고되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함. 당국에 따르면 현재 까지 등급시스템은 공평하게 적용되었으며 BT와 같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언급함.